

‘기생충’ 프랑스 박스오피스 2위 등극

한국영화 최초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기생충’이 지난 5일 프랑스에서 개봉했다.

‘기생충’은 개봉 후 9일까지 5일 동안 259,737명의 현지 관객을 동원하는 성적을 거뒀다. 이는 역대 프랑스 개봉 한국영화 중 최고 기록이었던 ‘설국열차’의 개봉주 관객 235,371명을 넘는 성적이다.

또한 ‘기생충’은 같은 날 개봉한 ‘엑스맨: 다크 피닉스’에 이어 프랑스 박스오피스 2위에 올라 예상 외의 성과를 거뒀다. 엑스맨: 다크 피닉스는 같은 기간 498,000명 관객을 동원했다. 하지만 ‘엑스맨: 다크 피닉스’의 개봉주 관객 기록은 597



개관에서 개봉해 거둔 것인데 비해 ‘기생충’은 179개관에서 거둔 기록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기생충’은 프랑스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300개관 이상으로 확대 상영될 예정이다.

역대 프랑스 개봉 한국영화 최고 스코어를 기록한 ‘설국열차’는 최종 약 68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2위 ‘취화선’은 약 31만 명, 3위 ‘아가씨’는 약 30만 명, 4위 ‘부산행’은 약 27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바 있다.

‘기생충’은 칸 국제영화제 공식 상영 이후 쏟아진 세계 언론들의 찬사와 황금종려상 수상이라는 성과로 개봉 전부터 큰 기대를 모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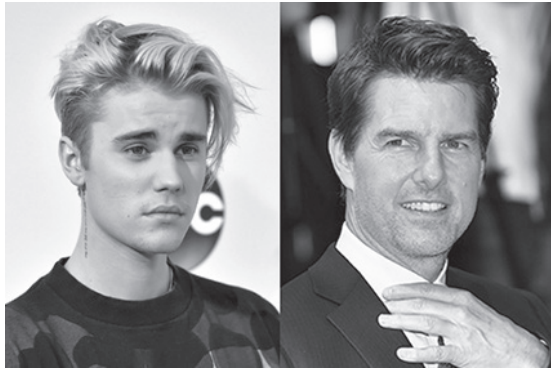
비버, 톰 크루즈에게 ‘옥타곤 결투’ 신청

가수 저스틴 비버(25)가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57)에게 느닷없이 결투를 신청했다.

비버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톰 크루즈와 옥타곤(이종격투장)에서 싸우고 싶다. 만약 당신이 겁먹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수치를 결코 만회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투를 신청했다.

또 “누가이 결투를 성사되게 도와줄래?” 라면서 ‘데이나 화이트’라는 이름에 해시태그를 붙였다. 데이나 화이트(50)는 세계 3대 이종격투기 대회인 UFC의 대표이다.

CNN은 11일 “비버의 결투 신청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다.”며 “비버와 크루즈 양쪽 홍보관계자 모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왜 25살의 비버가 56살의 톰 크루즈에게 싸움을 걸었는지 누구도 모를 듯하다.”며 “저스틴 비버의 결투 신청에 대한 미스터리가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버의 결투 신청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도 이목을 끌었다.

전 UFC 선수 코너 맥그리거(31·아일랜드)는 트위터를 통해 “톰 크루즈가 남자답게 이 결투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맥그리거 스포츠&엔터테인먼트가 이 대결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했다. “크루즈가 영화에서처럼 싸울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도 했다. 맥그리거 스포츠 & 엔터테인먼트는 맥그리거가 운영하는 스포츠 기획사다.

AMPAS 이사진 개편 유색인종은 20%에 불과

아카데미상(오스카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가 선거를 통해 이사진을 개편했다.

11일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AMPAS가 2019~2020 이사진 선거를 통해 새 이사 6명을 선출하고 기존 이사 10명을 재선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전체 54명의 이사 중 여성은 22명에서 24명(44%)으로 늘었다. 유색인종 이사는 10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유색인종 비중은 20%에 머무르고 있다. 아카데미는 그동안 백인 남성 중심의 이사진과 시상 관행으로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편으로 미투 캠페인을 주도한 여배우 로라 던이 이사진에 재합류했다.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 제작자 마크 존슨,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 로저 로스 윌리엄스도 재선됐다. 감독·배우·스태프의 90% 이상이 흑인인 영화 ‘블랙팬서’의 의상 디자이너 로스 엘레인 카터는 새 이사로 등재됐다.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는 내년 아카데미 시상식을 2월 9일에 개최하고 2021년과 2022년에는 2월 27일과 28일에 열기로 했다. 아카데미 측은 “2022년 동계올림픽, 슈퍼볼 등을 고려해 일정을 짰다.”라고 말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 ABC 방송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 중계되지만 최근 시청률 하락으로 고전해왔다.

8	2	3	1	4	5	9	6	7
4	5	9	3	6	7	1	8	2
6	7	1	8	2	9	3	4	5
9	6	7	2	1	8	4	5	3
1	8	5	9	3	4	2	7	6
2	3	4	5	7	6	8	9	1
3	9	6	4	5	2	7	1	8
5	4	2	7	8	1	6	3	9
7	1	8	6	9	3	5	2	4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태어난 시(時)를 몰라도 운명상담을 할 수 있다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오래 전의 어느 날 필자를 찾아온 40대의 여성과 상담을 하게 되었다. 그 여인이 필자에게 묻는 말이 “저는 내가 태어난 시(時)를 모르는데 팔자(八字)를 볼 수 있나요?”라고 묻는다. 그래서 필자가 답변해 준 이야기는 “흔히 보통의 철학자들은 태어난 시(時)를 꼭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관상(觀相)을 참조하거나 심지어는 잠을 자는 형태를 묻기도 하면서 억지로라도 팔자(八字)를 만들어서 해석하기도 하고, 학술(學術)적인 방법이 아닌 점술(占術)에 의지해서 운명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꽤어 맞추기식으로 운명을 해석하면 오히려 엉터리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태어난 시(時)가 의미하는 것은 자식과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노후의 삶을 말해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태어난 시(時)를 모른다면 차라리 시(時)를 빼고 팔자(八字)가 아닌 육자(六字)만으로 운명을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게 운명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생일만 가지고도 장기적인 운(運)의 흐름이 되는 대운(大運)의 흐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섯 글자만을 가지고 운명(運命)을 해석한다는 것은 자신의 팔자에 주어진 어떤 특정한 육친(六親) 관계의 유무(有無)를 구분하는 중요한 인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엉터리로 사주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어진 정확한 정보만을 가지고 운명을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라고 설명해 주고 그 여인과 운명상담을 해주게 되었다. 상담을 마치고 나서 그 여인이 매우 흡족해 하는 표정으로 하는 말이 “여기 찾아오기 전까지는 아주 답답한 심정이었는데 원장님과 상담을 하고나니 이제 후련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검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2px 5px; font-weight: bold; margin-right: 5px;">예약 필수</div> <div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 margin-right: 5px;">714.534.4645</div> <div style="font-size: 0.8em; margin-left: 5px;">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div> </div>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font-size: 1.5em; margin-right: 5px;">☯</div> <div style="font-weight: bold; margin-right: 5px;">청해역학</div> <div style="font-size: 0.8em; margin-left: 5px;">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학술원</div> </div>